

〈특집 : 東유라시아 물품 교역의 현황과 전망〉

## 1~3세기 중국 동북지역 정세 변화와 貂皮 교역\*

이 승 호\*\*

### 〈목차〉

- I. 머리말
- II. 1~2세기 담비가죽의 생산·유통과 挹婁貂
- III. 동북지역의 정세 변동과 교역망의 변화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3세기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담비가죽[貂皮]의 생산과 교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세기로부터 3세기 초까지 부여는 동쪽의 挹婁를 臣屬시키고 이들이 생산한 담비가죽을 가공·수출하면서 동북지역 담비가죽 교역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3세기 초를 기점으로 부여의 세력권 안에서 읍루가 이탈하면서 증원과 동북 수렵세력을 잇던 부여의 중계 교역망은 큰 타격을 입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25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東유라시아 물품 교역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학술회의 주제에 맞추어 필자의 박사학위논문(『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IV장 2절·3절 논의 및 이승호 「3세기 挹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동국사학』 64, 2018, II장의 논의를 보완·재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 중에 부여를 둘러싼 1~3세 국제정세와 관련한 서술은 대부분 위의 두 논문에서 전개한 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貂皮’ 교역에 대한 서술만을 추가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게 된다.

2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두만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고 북옥저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일대에서 부여의 영향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구려의 세력 확장은 부여가 읍루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읍루 사회 내부에서도 점차 정치적 결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읍루에 대한 부여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대외 정세는 3세기 초반 읍루가 부여로부터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3세기 중반 이후로 요동과 요서 지역에서 모용선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여로부터 증원으로 가는 교통로가 자주 차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동은 증원과 동북 수렵세력을 연결하던 부여의 지정학적 이점을 반감시켰고, 그 만큼 부여의 대외적 영향력도 축소되어 갔다. 급기야 285년 모용선비의 기습적인 공격에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 부여는 동북지역 담비가족 교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쇠퇴하는 부여를 대신하여 고구려가 담비가족 교역망을 장악하게 되면서 3~5세기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 담비가족 교역을 주도해 나갔다.

□ 주제어

부여, 읍루, 고구려, 교역 체계, 담비, 담비가족

## I. 머리말

『三國志』魏書 東夷傳에서는 부여의 지배층이 국외로 나갈 때 비단옷을 차려입고 그 위에 여우나 살쾡이 혹은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을 덧입었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여 자신의 신분과 위세를 드러내었다고 전한다.<sup>1)</sup> 여기서 부여 지배층이 입었다는 가죽옷, 즉 모피로 제작된 의복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치품이자 위세품

으로 애용되었다.<sup>2)</sup>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위치하였던 중국 동북지역을 둘러싼 유목지대와 삼림지대는 모피의 주요 생산처로서 이곳에서 생산된 모피는 중원 지역으로 유통·소비되기도 하였다.<sup>3)</sup>

비단 부여뿐만 아니라 고조선으로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만주' 지역 일대에서 번성하였던 세력은 모두 고대 동북아시아 모피 교역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고조선은 '文皮' 교역을 통해 중원 세력과 교류를 이어나갔고,<sup>4)</sup> 발해가 唐 및 일본과 교류를 할 때 '貂皮'는 핵심 교역품 중 하나였다.<sup>5)</sup> 이러한 점에서 모피는 고대 동아시아 교역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3세기 중국 동북지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해당 지역 모피 교역의 전개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 挾婁貂로 상징되는 고대 동북지역 貂皮 생산과 유통·교역에 주목함으로써 당시 동북지역 교역체계의 한 단면을 검토해볼 것이다. 본고에서 貂皮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담비가죽이 여러 모피 제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급 재료로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물론 사료의 제약으로 본고의 논의가 다소 시론적 접근에 그칠 가

1)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出國則尚縵·繡錦·罽, 大人加狐·狸·狽·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2) 강인옥,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246쪽.

3) 정석배, 「발해의 북방-서역무트 '담비길'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63, 2019, 13~16쪽.

4) 강인옥,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5) 윤재운, 「발해의 지방지배와 증개무역」, 『한국사학보』 75, 2019.

6) 西村三郎, 『毛皮と人間の歴史』, 紀伊國屋書店, 2003, 87~89쪽.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는 1~3세기 중원 사회에서 貂皮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晉書』卷25, 志 15, 輿服, “天子元服亦先加大冠, 左右侍臣及諸將軍武官通服之. 侍中·常侍則加金璫, 附蟬爲飾, 插以貂毛, 黃金爲竿, 侍中插左, 常侍插右. 胡廣曰, 昔趙武靈王爲胡服, 以金貂飾首. 秦滅趙, 以其君冠賜侍臣. 應劭漢官云, 說者以爲金取剛強, 百鍊不耗. 蟬居高飲清, 口在掖下. 貂內勁悍而外柔縵. 又以蟬取清高飲露而不食, 貂則

능성이 크지만, 3세기 무렵 부여에서 고구려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동북 지역의 정세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당시의 貂皮 교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검토로 치환할 수 있다면 挹婁貂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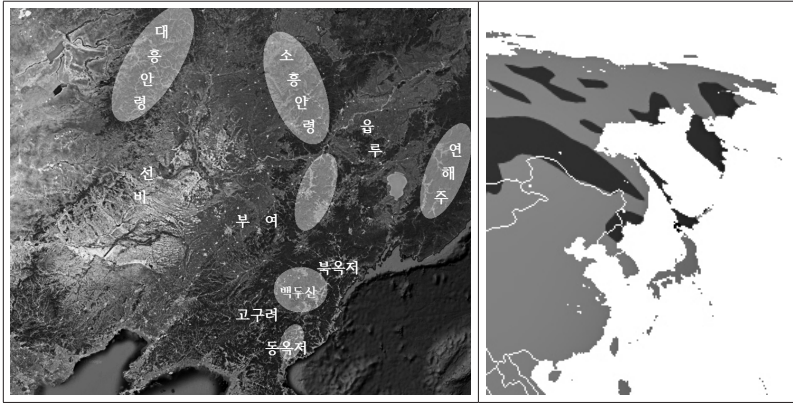
일단 기록을 통해 1~3세기 고대 동북지역에서 貂皮를 생산하거나 혹은 증원 국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세력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烏桓<sup>7)</sup>·鮮卑<sup>8)</sup> 등 동북방 유목세력이다. 둘째, 挹婁<sup>9)</sup>로 대변되는 동북방 삼림수렵세력이다. 셋째, 정주세력으로서 부여<sup>10)</sup>와 고구려<sup>11)</sup> 및 遼東 公孫氏<sup>12)</sup> 세력 또한 동북지역 貂皮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고 있었다. 즉 부여의 경우 貂皮가 특산품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 및 公孫氏의 경우는 모두 貂皮를 朝貢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뒤에서 검

---

紫蔚柔潤而毛采不彰灼，金則貴其寶瑩，於義亦有所取。或以爲北土多寒，胡人常以貂皮溫額，後世效此，遂以附冠。漢貂用赤黑色，王莽用黃貂，各附服色所尚也。”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읍루 담비[挹婁貂]’는 7~10세기에도 수요가 대단하였는데, 중앙아시아와 이란 상인들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주와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종족들에게서 초피를 구입하려 하면서 북방지역으로 교역 교통로 ‘담비길’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정석배, 「발해의 북방-서역루트 ‘담비길’ 연구」, 11~12쪽).

- 7) 『後漢書』卷90, 烏桓鮮卑列傳 80, 烏桓條, “(建武)二十二年, 匈奴國亂, 烏桓乘弱擊破之, 匈奴轉北徙數千里, 漠南地空, 帝乃以幣帛賂烏桓. 二十五年, 遼西烏桓大人郝且等九百二十二人率衆向化, 詣闕朝貢, 獻奴婢牛馬及弓虎豹貂皮.”
- 8) 『後漢書』卷90, 烏桓鮮卑列傳 80, 鮮卑條, “鮮卑者, 亦東胡之支也. (…中略…) 又有貂·豹·騾子, 皮毛柔蝟, 故天下以爲名裘.”
- 9)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出赤玉·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 10)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其國善養性, 出名馬·赤玉·貂·狽·美珠, 珠大者如酸棗.”
- 11) 『後漢書』卷20, 列傳 10, 祭彤傳, “二十五年,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偏何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 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
- 12) 『三國志』卷47, 吳書 2 吳主 孫權傳 嘉禾元年 10月條, “(嘉禾元年)冬十月, 魏遼東太守公孫淵遣校尉宿舒, 閭中令孫綜稱藩於權, 并獻貂馬. 權大悅, 加淵爵位.”



[도판 1] 고대 동북지역 貂皮 생산국과 산출지(좌) 및 검은담비 주요 서식지(우)<sup>13)</sup>

토하겠지만, 부여나 고구려, 공손씨의 경우는 이를 자체적으로 획득하였다기 보다는 주변 유목·수렵 세력으로부터 貂皮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3) 여기에 제시한 왼쪽 지도는 구글어스를 베이스로 필자가 편집한 것이며, 오른쪽 도판은 Wikipedia에서 부분 인용한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Sable#cite\\_note-martens-2](https://en.wikipedia.org/wiki/Sable#cite_note-martens-2)). 고대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담비가죽은 담비 분포로 볼 때 검은담비(Sable, *Martes zibellina*)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검은담비는 유라시아대륙 아한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데, 추운 겨울에 적응하여 촘촘하고 부드러우며 광택 있는 가죽을 가지고 있어 주요한 모피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 검은담비 주요 서식지는 大興安嶺과 小興安嶺 및 백두산 일대이며, 한반도의 양강도·함경도 일대에도 서식하는데 이 지역이 검은담비 분포의 남방 한계가 된다고 한다(우동걸, 「한반도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생태특성과 보전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2~14쪽 참조). 고대 동북지역 貂皮 생산은 烏桓·鮮卑 등의 동북방 유목세력과 挹婁·室韋·靺鞨 등 수렵세력이 주도하였는데, 지리적 위치상 烏桓·鮮卑·室韋 등은 주로 大興安嶺 일대에서 挹婁는 小興安嶺 및 연해주 일대에서 담비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II. 1~2세기 담비가죽의 생산·유통과 挹婁貂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피 생산은 오환·선비 등 동북방 유목세력 및 숙신·읍루·말갈로 이어지는 삼림수렵세력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이 생산한 모피 가죽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치는 상품은 담비가죽[貂皮]이었다.

사료 (가)-1

(읍루에서는) 赤玉과 좋은 담비가 나는데, 지금 소위 挹婁貂가 이것이다.<sup>14)</sup>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사료 (가)-2

(읍루에서는) 五穀과 麻布가 있으며, 赤玉과 좋은 담비가 난다.<sup>15)</sup>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위의 사료 (가)를 보면 3세기 무렵 읍루가 생산한 담비가죽은 소위 ‘읍루 담비[挹婁貂]’로 불리며 그 상품 가치가 높아 중원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료 (가)-2에서 보듯 당시 중원 지역으로 유통되던 담비가죽 중에는 읍루에서 생산된 것이 특히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읍루 세력이 위치했던 三江平原 및 연해주 일대에서 획득한 담비가죽이 다시 중원 지역까지 유통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중계교역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14)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出赤玉·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1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有五穀·麻布, 出赤玉·好貂.”

## 사료 (나)

挹婁는 夫餘 동북 천 여리에 있는데, 큰 바다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北沃沮와 접하며, 그 북쪽은 끝을 알 수 없다. …(중략)… 漢 이래로 夫餘에 臣屬하였는데, 부여가 그 租賦를 무겁게 물리자, 黃初 연간(220~226)에 이반하였다. 부여에서 여러 번 토벌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무리가 비록 적으나 산세가 험한 곳에 있으며,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활과 화살을 두려워하여, 끝내 복속시키지 못하였다.<sup>16)</sup>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위의 사료 (나)에서처럼 3세기 초까지 읍루는 부여에 '臣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읍루에서 생산된 담비가죽이 중원 지역까지 유통되는 데에 있어 부여의 역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사료가 전무한 관계로 읍루가 부여에 臣屬하였을 당시 양자의 구체적인 교류 양상을 명확히 알 방도는 없지만, 중국 문헌에 기재된 부여의 특산물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 사료 (다)-1

그 나라[부여]는 가축을 잘 기르며, 명마·赤玉·담비와 원숭이·아름다운 구슬이 나는데, 구슬이 큰 것은 대추[酸棗] 만하다.<sup>17)</sup>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16)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中略)…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17)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狢·美珠, 珠大者如酸棗.”

사료 (다)-2

나라를 나갈 때는 곧 비단옷·수놓은 옷·모직 옷[繪繡錦罽]을 숭상하고, 大人은 여우·살괘이·원숭이·희고 검은담비로 만든 가죽옷[狐狸狢白黑貂之裘]을 더하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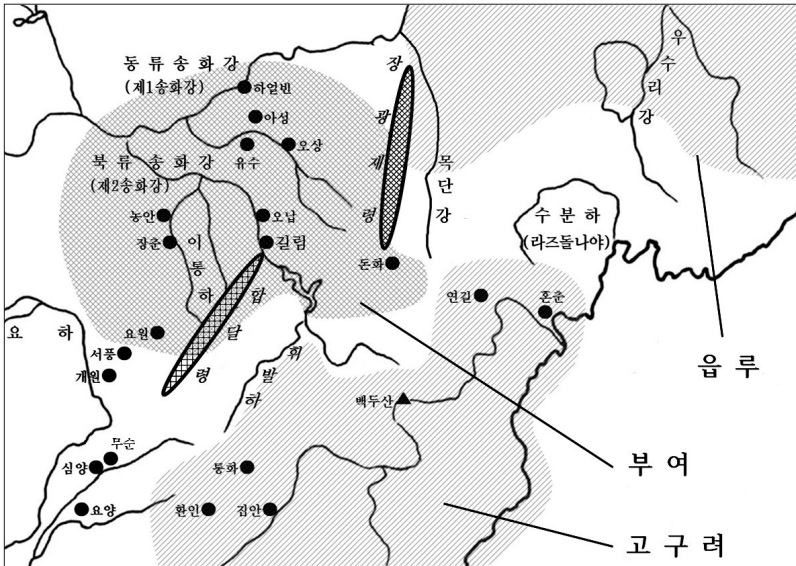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위의 사료 (다)-1을 앞서의 사료 (가)-1과 비교해 보면, 부여와 읍루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赤玉과 담비가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담비는 곧 담비가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 (가)-2에 따르면 부여의 지배층 [大人]은 담비가죽으로 옷을 해 입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담비가죽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중원에서 ‘읍루 담비[挹婁貂]’라고 불렸을 만큼 읍루에서 생산된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편, 읍루가 위치한 동북 삼림지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탄한 松花江 연안의 부여 지역에서는 수렵을 통한 대량의 담비가죽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록에 등장하는 부여의 담비가죽은 대체로 읍루의 특산품으로서 이를 부여가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중원 지역에 수출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곧 부여는 중원 지역과 읍루 사이에 이루어진 담비가죽 교역을 중계하였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사료 (다)-2에서 보듯 부여의 지배층이 담비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기록에 주목해보면, 부여는 읍루에서 생산된 모피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여 의복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자재의 주 획득처(생산처)가 寒帶 지역의 산간오지라는 특성상 모피의 획득→가공→유통→소비의 과정은 모두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원거

18)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出國則尙繪·繡錦·罽, 大人加狐·狸·狢·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도판 2] 2~3세기 부여·고구려·읍루의 세력 범위

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sup>19)</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여는 읍루에서 생산된 모피 원자재를 들여와 곧 의복이나 옷감 형태로 1·2차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부여 지배층의 위신재로 활용하거나 주변 지역에 유통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지하듯이 동아시아 북방 유목민의 경제체제는 자급자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정주농경사회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했다. 결국 그들은 호혜적 교역의 형태로든 아니면 적대적 약탈의 형태로든 정주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용구·곡식·사치품 등의 물자를 획득해야 했던 것이다.<sup>20)</sup> 읍루와 같은 삼림수렵민족의 처지 또한 이러한

19) 강인욱,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248~250쪽.

20) 김호동,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知識産業社, 1989, 261~263쪽.

유목민족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읍루가 거주하던 동북방의 삼림지대나 牡丹江·연해주 일대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읍루 또한 부여와의 교류를 통해 담비와 赤玉 등의 특산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물자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읍루가 생산한 담비가죽의 상대 교환품으로는 철기가 주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절에서 후술하듯이 고구려의 경우 挹婁나 室韋로부터 담비가죽을 제공받는 대신 그들에게 철기를 공급하던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중국 山東·河南 등지에서 제작된 철제품이 遼東郡·玄菟郡 등 중국 군현으로부터 부여로 유입되어 다시 읍루 세력이 위치하였던 흑룡강 중하류 유역으로 유통되었다는 지적도 부여-읍루 사이에 전개된 貂皮-철기 교역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sup>21)</sup>

한편, 앞서 사료 (나)에서는 漢代 이래로 부여에 臣屬되어 있었던 읍루가 부여가 租賦를 무겁게 물리자 이반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읍루에게 강요되었던 ‘租賦’에도 담비나 赤玉 등 지역특산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가까운 사례로 같은 사서의 東夷傳 高句麗條를 보면 3세기 무렵 고구려가 옥저로부터 수취하였던 공납물 중에 ‘貂布’가 확인된다.<sup>22)</sup> 마찬가지로 부여 또한 읍루를 臣屬시켰을 당시 읍루의 대표적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挹婁貂를 공납물로 요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읍루에 대한 부여의 공납제적 지배 방식은 공납을 근간으로 한 중앙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도 했다. 즉 공납은 부여와 같은 ‘초

21) 유은식,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2017, 106~107쪽; 박경신, 「二條凸帶鑄造鐵斧의 編年과 展開樣相」, 『韓國考古學報』 98, 2016, 33쪽.

22) 『後漢書』 卷20, 列傳 10, 祭彤傳, “二十五年,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偏何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 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

기국가'의 물자 재분배 및 유통체계의 근간이었으며, 중앙세력이 행사하는 대내외적 교섭권 내지 네트워크의 경제적 기반이었다.<sup>23)</sup> 부여는 이처럼 공납을 통해 확보한 각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 권력의 통제 하에 다른 지역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중앙 권력의 구심력을 극대화해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 사료 (라)

周 武王 시절, 그 楛矢와 石弩를 헌상하였다. 周公이 成王을 보좌하던 때 이르러, 다시 사신을 보내 入賀하였다. 이후 천여 년 동안, 비록 秦과 漢이 강성하였지만, (그들을) 오게 하지 못하였다. 文帝가 (魏의) 승상이 되었던 魏 景元(260~263) 말에 이르러 楛矢·石弩·弓甲·貂皮 따위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魏帝는 詔를 내려 (바친 물건을) 丞相府에 보내도록 하고, 그 왕 僂雞에게 錦罽와 絺帛을 하사하였다. 武帝 元康 초에 이르러 다시 와서 貢獻하였다.<sup>24)</sup>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肅慎條)

위의 사료 (라)를 보면, 周대에 中原으로 조공 사절을 보냈던 숙신이 그 이후로 秦·漢 시기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오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처럼 肅慎의 조공이 끊긴 이유는 기원전 2세기부터 북류 松花江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부여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中原으로 가는 肅慎의 교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25)</sup> 물론 여기서의 숙신을 곧바로 읍루와

23) 박대재,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2013, 265~266쪽.

24)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肅慎條, “周武王時, 獻其楛矢·石弩. 逮於周公輔成王, 復遣使入賀. 爾後千餘年, 雖秦漢之盛, 莫之致也. 及文帝作相, 魏景元末, 來貢楛矢·石弩·弓甲·貂皮之屬. 魏帝詔歸於相府, 賜其王僂雞·錦罽·絺帛. 至武帝元康初, 復來貢獻.”

25)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02에서는 읍

등치시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1~2세기에 걸쳐 읍루 세력의 동향이 증원 측에 포착되지 않았던 사실만큼은 부여의 영향력 확장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위의 기록 대로 肅愼의 조공이 魏 景元(260~263) 말에 이르러서야 재개되었음을 볼 때, 漢代 이래로 挹婁가 부여의 세력권 내에 臣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부여는 挹婁의 對中原 교섭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挹婁(肅愼)는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3세기 초 이전까지 증원으로의 교통이 부여에 의해 차단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부여는 읍루를 臣屬시킴으로써 그들의 대외교류 및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3세기 초까지 읍루는 부여로부터 부락민의 생존과 직결된 물자를 공급받으며 그러한 예속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당시 읍루에서 생산된 읍루초는 부여에서 한 차례 가공을 거친 다음 주변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吉林省 일대에 중심을 두었던 부여의 세력권 내에는 유목·수렵·농경 등 여러 계통의 문화와 집단이 혼재되어 있었다.<sup>26)</sup> 부여 왕권은 이와 같은 다양한 생산체계를 통할하고 四出道에 근간하는 유통망(교역망)을 장악하면서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부여만의 독특한 다문화적 성격을 유지해 나갔다.<sup>27)</sup> 당시 부여의 중심지였던 吉林省 일대의 대형 성지를 제외하면 부여의 영역 내에서 주요 거점 및 성지 유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또한 이러한 부여의 다문화적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sup>28)</sup> 부여

---

루·속신이 漢代에 증원과 왕래가 없었던 것은 이 무렵 읍루가 부여에 복속되었거나 그 통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26) 李鍾洙,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90쪽.

27) 이승호, 『夫餘政治史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90~194쪽.

28) 강인옥, 『靺鞨文化的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的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3, 2009, 29~30쪽.

왕권은 길림시에 구축된 왕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역 내의 유목·수렵·농경 등 서로 상이한 생산 물자의 유통망을 구축·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역 내에 지배력을 관철시키는 한편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한 담비가죽 물자를 부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중원 지역으로 유통시켰을까. 아래의 사료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제공한다.

사료 (마)

漢나라 때 夫餘王 장례에 玉匣을 사용하였는데, 항상 미리 玄菟郡에 부탁하였다가 王이 죽으면 곧 (군에) 나아가 (옥갑을) 가져다 장사지냈다. 公孫淵이 주살하니 玄菟의 창고에는 玉匣 1구가 그대로 있었다. 지금 부여 창고에는 玉璧·珪·瓊 등 數代에 걸쳐 전해진 물건들이 있고 대대로 보물로 여겼는데, 耆老가 말하기를 “先代에 하사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9)</sup>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부여는 前漢-後漢 시대에 걸쳐 대체로 漢朝 및 그 동북 郡縣과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였는데,<sup>30)</sup> 특히 위의 사료 (마)에서처럼 玄菟郡과는 직접 인원이 오고 가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부여는 玄菟郡과 교섭을 통해 漢朝에 貂皮를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구려와 漢의 교류도 玄菟郡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玄菟郡이 그 동쪽 경계에 이른바 ‘幘溝婁’를 설치하면서 양자의 교섭

29)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菟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庫有玉璧·珪·瓊數代之物, 傳世以爲寶, 耆老言先代之所賜也.”

30)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101~121쪽.

장소가 변화하게 된다.<sup>31)</sup> 그리고 이 玄菟郡과 幘溝婁에서 당시 漢과 고구려의 교역도 이루어졌다.<sup>32)</sup> 즉 부여와 고구려의 對中 교섭과 교역은 일차적으로 모두 玄菟郡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고구려는 차츰 玄菟郡의 통제에서 이탈하며 太祖王代를 기점으로 玄菟郡에 대한 공세로 대외정책을 전환하였고, 양자의 관계는 이후로 오랫동안 전쟁으로 점철되게 된다.<sup>33)</sup> 반면, 부여는 1~2세기에 걸쳐 현도군·요동군과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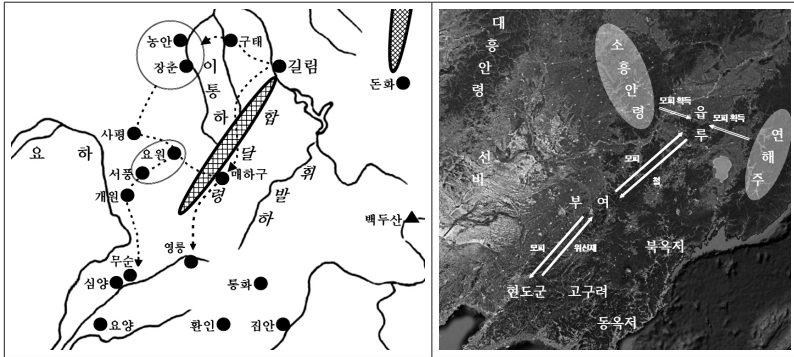
이때 부여와 玄菟郡을 이어주는 교통로는 대략 遼源·西豊 일대를 최전방 거점으로 하여 오늘날 撫順市 일대에 위치해 있던 玄菟郡으로 남하하는 경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아래의 [도판 3] 참조).<sup>34)</sup> 그렇다면 읍루로부터 확보한 貂皮를 중원으로 수출하였던 부여는 이를 통해 郡縣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 관련 기록이 전무하여 명확히 알 방도는 없지만, 당시 부여 王都가 자리하고 있던 오늘날 吉林市 일대에서 발견되는 五銖錢을 비

31)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高句麗條,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32) 김창식, 「高句麗 초·중기 對中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 2004, 10~15쪽.

33)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高句麗條, “至瘍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 更屬玄菟. 遼東太守蔡風·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 宮詐降請和, 二郡不進. 宮密遣軍攻玄菟, 焚燒候城, 入遼隧, 殺吏民.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鄉, 又攻西安平, 于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34)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186~188쪽 ;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233~235쪽. 이밖에 부여와 요동을 잇는 교통로로서 輝發河-柳河-渾河로 이어지는 강들의 연안로를 상정하기도 한다(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501쪽). 견해처럼 분명 이 경로 또한 부여와 요동 및 고구려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구려와 적대 관계를 지속하던 부여에게 있어 당시 輝發河 이남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고구려의 존재는 부여가 이 교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 3] 부여-현도군 교통로와 貂皮 교역 양상

못하여 銅鏡과 칠기 등 다량의 漢式 유물<sup>35)</sup>은 양자의 교역 물품에 대한 대략의 상황을 추측케 한다. 즉 부여는 郡縣에 貂皮 등의 모피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그로부터 다량의 사치품 혹은 위신재를 확보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36)</sup>

한편, 이 시기 부여와 남북으로 공존하며 경쟁하였던 고구려 역시 일찍부터 貂皮 교역의 일익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바)

(建武) 25년(49), 곧 사신을 보내 鮮卑를 불러들여 財利를 보이니, 그 大都護 偏何가 사신을 보내 奉獻하며 歸化하기를 원하였다. 彤은 위로하며 거두고 賞賜하니 점점 다시 親附하였다. 그 異種인 滿離와 高句驪의 무리도 마침내 끊임

35) 董學增, 『夫餘史迹研究』, 吉林出版集團 吉林文史出版社, 2011, 330~331쪽; 이종수,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선사와 고대』 30, 2009, 217~219쪽.

36) 한편, 고구려의 경우에는 교역을 통해 중원 지역에 담비가죽을 공급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교환 물자로서 비단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 91, 2014, 156~157쪽).



없이 왕래하고[遂駱] 塞門을 두드리며[款塞]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貂裘]과 좋은 말[好馬]을 바치니, 황제는 번번이 그 賞賜를 배로 하였다.”<sup>37)</sup>

(『後漢書』 卷20, 列傳 10, 祭彤傳)

사료 (바)에서는 1세기 중엽 遼東太守 蔡彤이 財利, 즉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주변 세력을 招撫하자, 鮮卑·滿離·고구려 등은 요동군 障塞로 가서 담비가죽으로 지은 옷과 좋은 말을 바치고 그에 상응하는 물자를 하사받는 이른바 ‘조공무역’을 진행하였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공무역에 고구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烏桓·鮮卑 등 동북방 유목민족의 경우 담비가 그들의 특산물 중 하나로서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三國志』 東夷傳이나 『後漢書』 東夷列傳에는 고구려의 특산품과 관련하여 담비가죽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고구려가 위치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자연 지리적 환경에 비추어 보아 고구려가 담비가죽을 직접 획득하여 貂裘를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백두산 자락 일대는 일찍부터 담비가죽의 주요 생산지로서 지적되어 왔으며, 초기 고구려 중심지와 인접한 通化市 金廠鄉(環通鄉) 躍進村(江南村)의 萬發撥子(舊 王八脖子) 유적에서는 기원전 시기부터 魏晉代까지 담비를 비롯한 모피동물 뼈가 다량 확인되고 있다.<sup>38)</sup> 기원전 1세기 무렵이면 桓仁 일대 原고구려 문화가 萬發撥子 유적에 출현하고 있음을 볼 때,<sup>39)</sup> 일찍부터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 내로 편입되었음

37) 『後漢書』 卷20, 列傳 10, 祭彤傳, “二十五年,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偏何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 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

38) 강인옥,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255쪽 및 276쪽 <표-1> 참조.

39) 오강원,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先原史文化的 展開와 初期高句麗文化的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창간호, 2004, 169쪽.



이 분명하다. 즉 고구려 역시 일찍부터 자체적인 모피 생산·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고구려의 경제적 기반이 소위 '약탈적 경제'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밖에도 외부로부터 담비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사료 (아)-1

(東沃沮는) 그 땅이 좁고 작으며 大國 사이에 끼어 있어 마침내 句驪에 臣屬하게 되었다. 구려는 다시 그 가운데 大人 두어 使者로 삼아 서로 감시하며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 租稅로서 貂布·魚鹽·해산물을 책임 지우고 美女를 뽑아 婢妾으로 삼았다.<sup>40)</sup>

(『後漢書』卷85, 東夷列傳 75, 東沃沮條)

사료 (아)-2

(東沃沮는) 나라가 작고 大國의 틈바구니에서 핏박을 받다가 마침내 句驪에 臣屬하게 되었다. 句驪는 다시 그 가운데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아 함께 主領하게 하였다. 또 大加로 하여금 그 租稅로서 統責하게 하여, 貂布·魚鹽·해산물을 천리를 지고 날라오게 하였다. 또 그 미녀를 보내게 하여 婢妾으로 삼고 奴僕과 같이 대우하였다.<sup>41)</sup>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東沃沮條)

40) 『後漢書』卷85, 東夷列傳 75, 東沃沮條,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句驪復置其中大人爲使者, 以相監領, 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發美女爲婢妾焉.”

41)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東沃沮條, “國小, 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句驪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

위의 사료 (아)-1을 보면 3세기 무렵 고구려는 동옥저로부터 貂布를 수취하였음을 전한다. 이에 대해 사료 (아)-2를 보면 ‘貂布’를 ‘貂布’라 달리 적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貂布의 잘못이라 여겨진다. 주민집단 대부분이 濊族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동옥저에서 생산된 布를 ‘貂布’라 불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또 ‘貂’와 ‘貂’은 서로 자형이 유사하여 필사 과정에서 誤記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시 고구려가 외부 세력과의 교류에 활용한 담비가죽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획득·가공한 것과 함께 옥저 등으로부터 공납 받은 물자 또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고구려 역시 자체적으로 담비가죽의 생산·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貂布 수급도 이루어지고 있었다.<sup>42)</sup>

하지만 당시까지 담비가죽을 매개로 한 고구려의 교역 역량은 부여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3세기 초까지 읍루를 臣屬시킴으로써 ‘挹婁貂’의 수급을 독점하고 이를 중원으로 공급하였던 부여의 교역망을 고려할 때, 당시 동북지역 담비가죽 생산과 교역은 부여가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요동 일대 중국 군현과 대체로 호혜적 관계를 지속해왔던 부여와 달리 고구려는 1~2세기에 걸쳐 줄곧 玄菟郡을 비롯한 주변 군현과 투쟁과 반목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고구려의 강경한 대외정책은 중원 지역으로 공급하는 담비가죽의 교역 루트를 다양화시키는 데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玄菟郡과의 잦은 군사적 충돌은 중원 세력과 담비가죽 교역을 원활히 지속시키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42) 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155쪽에서도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교역에 사용된 담비가죽이 유목·수렵사회로부터 획득한 다음 가공 내지 유통의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Ⅲ. 동북지역의 정세 변동과 교역망의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2세기 무렵 부여는 挾婁를 臣屬시키며 牡丹江과 연해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그들에게 賦稅를 무겁게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부여는 읍루 지역에서 산출되는 赤玉과 담비가죽을 부세로 거두어 中原 지역에 수출하는 중계교역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역 체계는 부여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며, 읍루 또한 부여와의 교역을 통해 철기를 비롯한 다양한 산물을 공급받으며 척박한 자연환경에서의 삶을 개선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牡丹江 유역과 북옥저 일대를 아울렀던 부여의 영향력<sup>43)</sup>은 3세기 초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黃初 연간(220~226)에 발생한 읍루의 이반이었다. 앞서의 사료 (나)에서처럼 부여는 이반한 읍루를 여러 차례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하였지만, 끝내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 번 부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자 읍루의 기세는 더욱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사료 (자)-1

그 나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잘 하므로, 이웃 나라들은 이를 걱정하였다.<sup>44)</sup>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挾婁條)

43)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74~78쪽.

44)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挾婁條, “其國便乘船寇盜, 鄰國患之.”

사료 (자)-2

배를 잘 타고 노략질을 좋아하니,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는데,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다.<sup>45)</sup>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사료 (자)-3

北沃沮는 일명 置溝婁라고도 하는데, 南沃沮와 8백 여리 떨어져 있다. 그 풍속은 남북이 모두 같으며, 挹婁와 접해 있다. 挹婁가 배를 타고 다니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니, 북쪽자는 이를 두려워하여, 여름철에는 늘 산 바위 깊은 동굴에서 수비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뱃길이 통하지 않으니 (산에서) 내려와 촌락에 거주한다.<sup>46)</sup>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沃沮條)

사료 (자)-4

(서천왕) 11년(280) 겨울 10월, 肅愼이 來侵하여 邊民을 屠害하였다. 왕이 群臣에게 일러 말하길, “寡人이 眇末한 몸으로 외람되게 기업(邦基)을 이어받았으나, 덕은 (백성을) 편케 할 수 없고, 위엄은 떨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러 鄰敵이 우리 강역을 어지럽히고 있다. 생각건대 謀臣과 猛將을 얻어 (적을) 꺾고 멀리 찌르고자 너희 群公에게 물으니, 각기 奇謀異略의 재주로 장수 감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하라.”라고 하였다. 群臣이 모두 말하기를, “王弟 達賈는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으니 大將이 될 만합니다.”라 하였다. 왕은 이에 達賈를 보내 (숙신을) 치게 하였다. 達賈는 나아가 기습 掩擊하여 檀盧城을 함락시키고 酋長을 죽

4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挹婁條, “便乘船, 好寇盜, 鄰國畏患, 而卒不能服.”

4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沃沮條,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冰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였으며, 주민 6백여 家를扶餘 남쪽 烏川으로 옮기고, 6·7개소의 부락을 항복시켜附庸으로 삼았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達賈를 배하여 安國君으로 삼고, 內外兵馬事를 맡게 하고 겸하여 梁貊·肅慎의 諸部落을 통솔케 하였다.<sup>47)</sup>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5, 西川王 11年條)

#### 사료 (자)-5

(봉상왕) 元年(292) 봄 3월, 安國君 達賈를 죽였다. 왕은 賈가 諸父의 항렬이며 큰 功業이 있어 백성의 瞻望을 받으므로 이 때문에 그를 의심하여 謀殺하였다. 國人이 말하길 “安國君이 아니면 백성은 梁貊과 肅慎의 환난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것을[양맥과 숙신 문제를] 장차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 하며 백성들이 눈물을 뿌리며 서로 조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sup>48)</sup>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元年條)

주지하듯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전하는 대외 정세는 대체로 3세기 중엽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사료 (자)-1·3의 형세 또한 3세기 중반 시점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사료에서 보듯 읍루는 부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주변 국가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그동안 부여와의 교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았던 읍루가

47)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5, 西川王 11年條, “十一年, 冬十月, 肅慎來侵, 屠害邊民. 王謂群臣曰, 寡人以眇末之軀, 謬襲邦基, 德不能綏, 威不能震, 致此鄰敵, 猗我疆域. 思得謀臣猛將, 以折遐衝, 咨爾群公, 各學奇謀異略才堪將帥者. 群臣皆曰, 王弟達賈勇而有智略, 堪爲大將. 王於是, 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慎諸部落.”

48)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元年條, “元年, 春三月 殺安國君達賈. 王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 故疑之謀殺. 國人曰, 微安國君, 民不能免梁貊肅慎之難, 今其死矣, 其將焉託, 無不揮涕相弔. 秋九月, 地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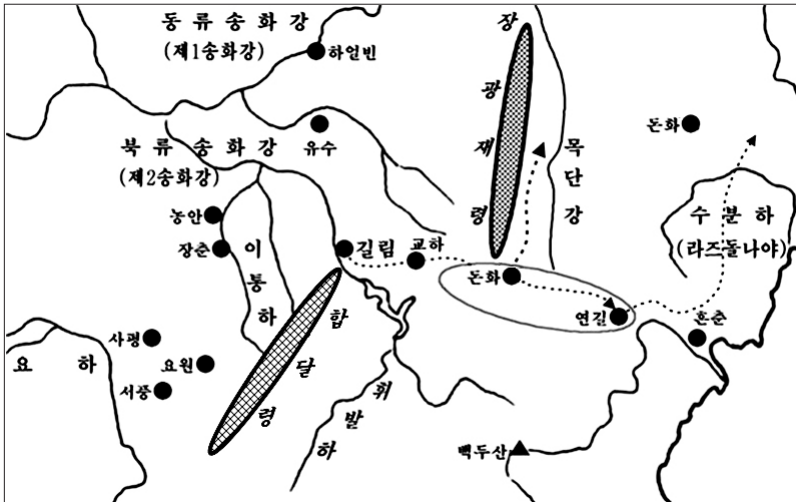
부여와 관계가 차단되자 주변 지역을 약탈하면서 필요 물자를 조달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사료 (자)-1·3에서 보듯 읍루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옥저 일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黃初 연간(220~226) 이전, 즉 읍루가 부여에 신속해 있었을 당시 양자를 이어주었던 교통로는 오늘날의 敦化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교통로였을 가능성이 크며, 부여는 이 교통로를 기반으로 敦化에서 다시 挹婁 혹은 北沃沮 일대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9)</sup> 그런데 3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부여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한 읍루가 북옥저 일대를 노략질하고 있음을 볼 때, 이때 부여는 牡丹江과 북옥저 일대에까지 확장하였던 그들의 영향력과 교역망을 대부분 상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료 (자)-4에서 보듯 읍루의 일부 집단은 북옥저 일대를 넘어 고구려 변경까지 침입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서는 ‘숙신’으로 적고 있지만, 이는 당시 부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세력을 팽창해가던 읍루系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때 고구려는 숙신의 침입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집단을 복속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동북지역 교역체계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있어 고구려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이미 2세기 초 무렵부터 渾春 일대에 柵城을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태조왕 시대부터 서서히 북옥저 지역 일대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sup>50)</sup> 당시 부여의 읍루·북옥저 방면 교통로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고구려의 세력 확장은 부여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여가 읍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옥저 지방 진출에 박차를 가하던 고

49)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71쪽 ;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236~237쪽.

50)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114~116쪽.



도판 4] 부여의 읍루·북옥저 방면 교통로

구려의 존재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3세기 초반 무렵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읍루는 점진적으로 정치적 결집을 이루기 시작했다. 『三國志』 단계에서는 “大君長은 없고, 邑落마다 각각 大人이 있다.”<sup>51)</sup>라고 하였으나, 『晉書』에서는 “父子가 대대로 君長이 된다.”<sup>52)</sup>라고 하여 지배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의 사료(라)에서는 周代 이후로 숙신의 조공이 끊겼다가 3세기 중엽인 魏 景元 연간(260~263)에 이르러 다시 조공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3)</sup> 이는 곧 그간 부여에 신속된 상태로 주체적인 대외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읍루 세력이 다시 중원 세력과 독자적인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sup>54)</sup> 특히 이때 傳雞란 자가 읍루의 왕을 칭하고 있음을 볼 때, 읍루

51)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52) 『晉書』 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肅慎條, “父子世爲君長”

53) 실제 이는 景元 3년인 262년의 일이다. 『三國志』 卷4, 魏書 4, 景元 3年 夏4月條 및 『晉書』 卷2, 魏書 4, 景元 3年 夏4月條.

일대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사료 (차)

칼(刀子)과 담비가죽(貂皮)을 교환하다. 담비는 구려국(句麗國)에서 나는데, 항상 어떤 한 생물(一物)과 굴에서 함께 산다. 혹 그것(一物)을 보면, 모습이 사람과 유사하고, 길이는 3척으로 담비(가죽)을 잘 다루며, 칼(刀子)을 좋아한다. 그 습속에 사람이 담비가죽(貂皮)을 얻고자 하면, 칼을 동굴 입구에 던진다. 그 생물이 밤에 동굴을 나와서 가죽을 칼 주변에 놓아두면, 기다리던 사람이 가죽을 가져가고, 곧 (그 생물이) 그 칼을 취한다.<sup>56)</sup>

(『異苑』 卷3, 刀子換貂皮)

위의 사료 (차)는 劉宋人 劉敬叔이 찬한 『異苑』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서 『異苑』은 晉·宋代의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일종의 志怪書 형식의 설화집이다.<sup>57)</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 중원 지역에 유통되던 담비가죽의 생산지를 고구려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료 (차)의 기록은 晉·宋代에 중원 지역에서 담비가죽의 생산지를 고구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전하는 중국 정사에 기록된 고구려의 특산품 중에 담비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방면에서 산출되는 담비가죽은 纁(붉은) 부여<sup>58)</sup> 혹은 罽(갈색) 魯<sup>59)</sup> 관련 기사에서만 확인되며, 『魏書』와 『北

54)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55) 이정빈, 「3世紀 肅慎의 動向과 高句麗」, 『제1회 한중 고구려 소장학자 학술교류 회의 자료집』, 2016, 171~173쪽.

56) 『異苑』 卷3, 刀子換貂皮 “刀子換貂皮。貂出句麗國，常有一物共居穴。或見之，形貌類人，長三尺，能製貂，愛樂刀子。其俗，人欲得貂皮，以刀投穴口。此物夜出穴，置皮刀邊，須人持皮去，乃敢取刀。”

57) 神田信夫·山根幸夫 編,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1989, 3쪽.



史』 단계에 와서는 그 생산지가 勿吉<sup>60</sup> 혹은 室韋<sup>61</sup>로 바뀌게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담비는 고구려 자체 특산품이었다기보다 당시 읍루 혹은 물길 지역에서 산출되던 이른바 ‘挹婁貂’를 고구려가 들여와 다시 중원 지역에 수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62</sup> 또 담비가죽과 거래되었다는 ‘칼[刀子]’은 곧 고구려가 읍루에게 담비가죽의 교환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sup>63</sup> 요컨대, 읍루 지역에 대한 부여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후 담비 교역의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점차 고구려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료 (카)

그 해(233)에 宮이 皂衣 25인을 보내어 (秦)묘 등을 돌려보내고 表를 올려 稱臣하며 貂皮 1,000枚과 鷓鴣雞皮 10具를 조공하였다. 묘 등이 (孫)權을 알현하니 悲喜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였다. 權은 이를 의롭다 하여 모두 校尉에 拜하였다. 1년이 지난 뒤 使者 謝宏과 中書 陳恂을 보내 宮을 배하여 單于로 삼고 더

58)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狽·美珠, 珠大者如酸棗.”

59)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挹婁條, “出赤玉·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60) 『魏書』卷100, 列傳 88, 勿吉國條,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 (…中略…) 若秋冬, 以其屍捕貂, 貂食其肉, 多得之.”

61) 『魏書』卷100, 列傳 88, 失韋國條, “失韋國, 在勿吉北千里, 去洛六千里. (…中略…) 國土下濕.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 頗有粟麥及稌, 唯食猪魚, 養牛馬, 俗又無羊. 夏則城居, 冬逐水草. 亦多貂皮.”; 『北史』94, 列傳 82, 室韋國條, “室韋國在勿吉北千里, 去洛陽六千里. (…中略…) 國土下濕,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 頗有粟·麥及稌. 夏則城居, 冬逐水草, 多略貂皮.”

62) 이처럼 『異苑』에 전하는 칼(刀子)과 담비가죽(貂皮)을 교환하는 교역방식은 당시 고구려와 읍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침묵교역(silent trade)’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창석, 「高句麗 초·중기 對中교섭과 교역」, 3쪽; 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152쪽).

63) 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153쪽

하여 衣物과 珍寶를 하사하였다.<sup>64)</sup>

(『三國志』卷47, 吳書 2 吳主 孫權傳 嘉禾 2年條)

이와 관련하여 위의 사료 (카)의 기록이 주목된다. 여기서 고구려는 233년 孫吳에 담비가죽 1천 매와 갈계피 10구를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1천 매에 달하는 담비가죽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하여 孫吳에 보내는 과정은 당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담비가죽 유통망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무렵 고구려가 동북지역의 담비가죽 유통망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처럼 해로를 통한 외부와의 교섭은 대외교역에 있어 북방 내륙에 치우쳐 있는 부여가 갖지 못한 고구려의 강점을 보여준다. 즉 고구려는 부여와 달리 해로를 통한 교역망의 확장이 가능했고, 담비교역에 있어서도 부여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세기 중후반을 지나는 시점부터 遼西와 遼東 일대에서 鮮卑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북지역의 정세는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여로부터 중원으로 가는 교통로도 자주 차단 내지는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러한 상황은 중원과 동북방 삼림수렵민족을 이어주던 부여의 중계 교역망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다를 통해 중원과의 교역로를 확보한 고구려는 이를 기회로 동북지역 담비교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85년에 부여가 모용선비의 침공을 받아 일시 붕괴하면서 그 세력이 크게 꺾이게 되었고, 동북지역 일대의 패권은 완전히 고구려로 넘어가게 된다. 급기야 4세기 초 무렵 부여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었던 西晉이 무너지면서

64) 『三國志』卷47, 吳書 2 吳主 孫權傳 嘉禾 2年條(所引『吳書』逸文), “其年, 宮遣皂衣二十五人送巨等還, 奉表稱臣, 貢貂皮千枚·鷄雞皮十具, 巨等見權, 悲喜不能自勝. 權義之, 皆拜校尉. 間一年, 遣使者謝宏·中書陳恂拜宮爲單于, 加賜衣物珍寶.”

대외적으로 부여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증원 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도 함께 차단되면서 이에 기반하여 구축하였던 교역망도 완전히 붕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타)-1

(景元) 3년(262) …(중략)… 여름 4월, 遼東郡에서 말하기를 肅慎國이 사신을 보내 重譯을 통해 入貢하여 그 나라 弓 30張을 바쳤는데 길이가 3尺 5寸이었으며 楛矢는 길이가 1尺 8寸이었고, 石弩 300枚과 皮骨鐵雜鎧 20領, 貂皮 400枚을 바쳤다.<sup>65)</sup>

(『三國志』卷4, 魏書 4, 三少帝紀 陳留王奐 景元 3年條)

사료 (타)-2

建平 원년(330) 이때에 고구려와 숙신이 그 楛矢를 보내왔으며, 宇文屋孤가 나란히 (石)勒에게 名馬를 바쳤다.<sup>66)</sup>

(『晉書』卷105, 載記 5, 石勒載記 下, 建平 元年條)

사료 (타)-3

後趙 石勒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楛矢를 보냈다.<sup>67)</sup>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31年條)

65) 『三國志』卷4, 魏書 4, 三少帝紀 陳留王奐 景元 3年條, “三年 …(中略)… 夏四月, 遼東郡言肅慎國遣使重譯入貢, 獻其國弓三十張, 長三尺五寸, 楛矢長一尺八寸, 石弩三百枚, 皮骨鐵雜鎧二十領, 貂皮四百枚.” 같은 기록이 『晉書』에도 전한다. 『晉書』卷2, 帝紀 2, 太祖文帝 司馬昭 景元 3年條, “(景元) 三年夏四月, 肅慎來獻楛矢·石弩·弓甲·貂皮等, 天子命歸於大將軍府.”

66) 『晉書』卷105, 載記 5, 石勒載記 下, 建平 元年條, “(建平 元年) 時高句麗·肅慎致其楛矢, 宇文屋孤並獻名馬於勒.”

위의 사료 (타)-1에서는 景元 3년(262)에 숙신의 사신이 重譯을 통하여 요동군에 入貢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담비가죽은 중요한 조공 물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앞서 사료 (라)에서는 이 景元 3년 이후로 元康(291~299) 초에 숙신이 다시 조공을 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元康 연간 이전인 咸寧 5년(279)에도 숙신의 조공이 한 번 진행되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sup>68)</sup> 이후 東晉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太興 2년(319)에도 숙신의 조공 기록이 확인된다.<sup>69)</sup> 그런데 당시 숙신이 東晉에게 조공하려면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행길은 당시 낙랑군·대방군 방면 진출에 성공한 고구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그러고 보면 사료 (타)-1에서 숙신의 사신이 요동군에 入貢하는 과정 또한 重譯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사료 (타)-2에서는 고구려와 숙신이 함께 後趙 石勒에게 楛矢를 보냈다고 전하는데, 사료 (타)-3의 『삼국사기』에서는 이때 後趙와의 교섭을 고구려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숙신의 대외교류는 고구려의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이상은 모두 ‘숙신’으로 표현된 일부 읍루계 집단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기록들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고구려와 읍루계 집단의 관계는 5세기 이후로도 지속되었음이 아래의 사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 사료 (파)-1

世祖 孝建 2년(455) 璉이 長史 董騰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國哀 再周를 조문

67)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31年條, “遣使後趙石勒, 致其楛矢.”

68) 『晉書』卷3, 帝紀 3, 世祖武帝 司馬炎 咸寧 5年條, “(咸寧 5年) 十二月 … 肅慎來獻楛矢石弩.”

69) 『晉書』卷6, 帝紀 6, 中宗元帝 司馬睿 太興 2年條, “(太興 2年) 八月, 肅慎獻楛矢石弩.”

하며 아울러 方物을 바쳤다. 大明 3년(459) 또 肅慎氏의 楛矢와 石弩를 바쳤다.<sup>70)</sup>

(『宋書』卷97, 夷蠻列傳 57, 高句麗條)

#### 사료 (파)-2

(大明 3年) 11月 己巳에 高麗國이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肅慎國은 重譯을 통해 楛矢와 石弩를 바쳤다. 西域은 舞馬를 바쳤다.<sup>71)</sup>

(『宋書』卷6, 本紀 6, 孝武帝 劉駿 大明 3年條)

#### 사료 (파)-3

孝武帝 大明 3年 11月 己巳에 肅慎氏가 楛矢와 石弩를 바쳤는데, 高麗國이 통역[譯]하여 이르렀다.<sup>72)</sup>

(『宋書』卷29, 志 19, 符瑞 下)

사료 (파)-1에서는 大明 3년(459)에 고구려가 宋에 肅慎氏의 楛矢와 石弩를 바쳤다고 전하는데, 이는 사료 (파)-2와 (파)-3에서 보듯 고구려 사신이 숙신의 사신을 대동하여 宋에 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숙신의 사신은 고구려의 重譯을 통해 宋에 조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3세기 중반 이후로 5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숙신’으로 표현된 연해주 일대 읍루계 집단의 대외적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기 담비가죽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북지역의 모피 교역

70) 『宋書』卷97, 夷蠻列傳 57, 高句麗條, “世祖 孝建 2년(455), 璉遣長史董騰奉表慰國哀再周, 并獻方物. 大明三年, 又獻肅慎氏楛矢石弩.”

71) 『宋書』卷6, 本紀 6, 孝武帝 劉駿 大明 3年條, “(大明 3年) 十一月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慎國重譯獻楛矢·石弩. 西域獻舞馬.”

72) 『宋書』卷29, 志 19, 符瑞 下, “孝武帝大明三年(459)十一月己巳, 肅慎氏獻楛矢石弩, 高麗國譯而至.”

또한 고구려가 주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구려는 4세기 초반부터 西安平-樂浪郡-帶方郡을 차례로 장악하고 서해 연안의 항구를 확보함으로써 육로와 해로를 통한 중원과의 교역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5호 16국 시기를 거쳐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이른바 ‘조공·책봉체제’ 속에서 朝貢과 回賜의 형식을 빌은 국가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73)</sup> 그리고 주지하듯이 이 시기 고구려는 남북조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사료 (하)-1

南室韋는 契丹 북쪽 3천리에 있다. 토지가 낮고 습하여 여름이 되면 곧 북쪽으로 이동한다. …(중략)… 그 나라에는 鐵이 없어 高麗로부터 공급받아 취한다. 담비가 많다.<sup>74)</sup>

(『北史』 권94, 列傳 82, 室韋國)

사료 (하)-2

나라[고구려]에 銀山이 있어 채굴해 貨幣로 삼는다. 또한 人蔘과 貂皮가 있다. 중국의 비단을 귀중이 여겨서 丈夫는 이로써 옷을 해입는다. 또한 虎皮를 귀중히 여긴다.<sup>75)</sup>

(『健康實錄』 卷16, 東南夷 高麗條)

사료 (하)-1의 南室韋는 대체로 지금의 눈강 중하류 일대에 거주하며

73) 김한규, 『한중관계사』 1권, 아르케, 1999, 214~216쪽.

74) 『北史』 권94, 列傳 82, 室韋國條,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 土地卑濕, 至夏則移向北. …(中略)…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多貂.”

75) 『健康實錄』 卷16, 東南夷 高麗條, “國有銀山, 採爲貨. 並·人蔘 貂皮, 重中國綵纈, 丈夫衣之, 亦重虎皮.”

유목·수렵 생활을 영위하던 세력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에게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아 고구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담비가 많이 난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이로 보아 남실위는 고구려로부터 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대표적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담비가죽을 고구려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sup>76)</sup> 또 사료(하)-2의 『健康實錄』은 唐 許嵩이 편찬한 六朝 시기 사료집으로서 위에 인용한 고구려 관련 기사는 『南齊書』 고려전의 逸文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구려의 특산물로서 인삼과 함께 담비가죽이 거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3세기 전반 동북지역의 정세 변동 속에서 담비가죽을 둘러싼 교역체제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로 4~5세기에 걸쳐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담비가죽의 유통과 교역은 모두 고구려에 의해 장악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IV. 맺음말

본고는 1~3세기 중국 동북지역의 정세 변화 속에서 해당 지역 교역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당시 挹婁貂로 상징되는 고대 동북지역貂皮 생산과 유통·교역에 주목함으로써 논의를 풀어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제약으로 논의가 시론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무리한 추론도 많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76) 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151~153쪽. 16세기 함경도에서도 여진인에게 철제농기구를 팔고貂皮를 공급받았던 사례를 찾을 수 있다(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2011, 94~97쪽).

본론에서 살펴본 바, 3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동북지역의 담비가죽 교역체계는 한 차례 큰 변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는 3세기 초까지 읍루를 臣屬시키고 이들이 생산한 담비가죽[挹婁貂]을 중원 지역으로 유통하는 중계교역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여의 교역방식은 黃初 연간(220~226)을 기점으로 쇠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요인은 고구려의 성장과 읍루의 이탈·자립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세기 초 고구려가 두만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고 북옥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해당 지역에서 부여의 영향력을 일소해나갔고, 자체적으로 정치적 결집을 이루어 나가던 읍루 또한 3세기 초에 부여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하면서 당시까지 부여가 장악하고 있던 담비가죽 교역망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동북지역의 담비가죽 유통망과 교역의 주도권은 부여를 대신하여 고구려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3년에 孫吳와의 교섭 과정에서 고구려는 1천 매에 달하는 담비가죽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담비가죽 유통망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후로 고구려는 - 아마도 연해주 읍루係 집단으로 추정되는 - ‘숙신’ 세력을 부용시키고 이들의 대외교섭을 간섭·통제하였는데, 이러한 ‘숙신’과 고구려의 관계는 4~5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3세기 초까지 부여가 수행하였던 ‘읍루 담비[挹婁貂]의 중계교역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019.11.07. 투고 / 2019.12.10. 심사완료 / 2019.12.10. 게재확정)



[Abstract]

A Change of the Sable Fur(貂皮) Trading System in the Northeastern  
Region in China during the 1st~3rd Century

Lee, Seung-ho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trend of changes in the trading system of sable fu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China during the 1st~3rd Century. The conclusion formulated through this study is shown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in the 3rd century had a major change. And, under the change of such a political situation, the trading system of sable fur had encountered with a change as well. Up to the early period of the 3rd century, Buyeo took over Yilou and processed and exported sable furs that they produced. However, with the 220s as a turning point, Buyeo lost its initiative right of such sable trading. The cause of it was the growth of Goguryeo and deviation and independence of Yilou.

From the early 2nd century, Goguryeo secured the lower basin of Tumen River and expanded its power toward the North Okjeo region to push off the influence of Buyeo from the region. Along with this development, in the early 3rd century, Yilou gained independence from Buyeo and the trading network for sable fur that Buyeo had complete control was completely collapsed. And, instead of Buyeo, Goguryeo took over the initiative of trading including the distribution

network of the sable fur. And thereafter, Goguryeo completely controlled the initiative of the sable fur trading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through 3rd~5th century.

□ Keyword

Buyeo, Yilou, Goguryeo, Trading System, sable, sable fur,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한규, 『한중관계사』 1권, 아르케, 1999.

송호정,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15.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董學增, 『夫餘史迹研究』, 吉林出版集團 吉林文史出版社, 2011.

西村三郎, 『毛皮と人間の歴史』, 紀伊國屋書店, 2003.

神田信夫·山根幸夫 編,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1989.

## 2. 연구논문

강인옥,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3, 2009.

\_\_\_\_\_,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2011.

김창석, 「高句麗 초·중기 對中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 2004.

김호동,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知識産業社, 1989.

박대재,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2013.

오강원, 「萬發撥子を 통하여 본 通化地域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창간호, 2004.

우동걸, 「한반도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생태특성과 보전방안」, 서울대

- 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유은식,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2017.
- 윤재운, 「발해의 지방지배와 중개무역」, 『한국사학보』 75, 2019.
-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3세기 挾婁의 이탈과 夫餘의 쇠퇴」, 『동국사학』 64, 2018.
- \_\_\_\_\_,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 이정빈,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 91, 2014.
- \_\_\_\_\_, 「3世紀 肅愼의 動向과 高句麗」, 『제1회 한중 고구려 소장학자 학술 교류 회의 자료집』, 2016.
- 이종수,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선사와 고대』 30, 2009.
- 정석배, 「발해의 북방-서역루트 ‘담비길’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63, 2019.
- 王綿厚, 「東北古代夫餘部の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02.
- 李鍾洙,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 3. 인터넷 자료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Sable#cite\\_note-martens-2](https://en.wikipedia.org/wiki/Sable#cite_note-martens-2))